

담배반출량과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Tobacco Sales and Smoking Rates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몇 년간 담배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음.

1. 서

지난 '08년도 6월까지 최근 몇 년간 연도별 담배반출량과 흡연율 추이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 흡연율 조사 자체 및 건강증진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각종 비가격 금연정책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¹⁾ 국회에서도 적절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²⁾

흡연율은 <표 1>과 같이 '07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08년 12월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담배반출량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본 고에서는 먼저 담배반출량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후 담배

표 1. 연도별 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6	2008. 12
남자	57.8	52.3	44.1	42.0	40.4	40.9
여자	4.0	2.7	2.3	4.6	3.7	4.1
평균	30.4	27.2	22.9	23.0	21.9	22.3

자료: 2001 :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2000~2008(한국갤럽)/2005년부터 자료는 12월 기준자료임.

1) 한국일보(2007. 7. 25)

2)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흡연율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담배반출량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반출량과 흡연을 변화추이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담배반출량의 정의

일반적으로 세법에서의 '반출'은 과세물품을 국내 제조장 및 보세창고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및 보세창고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담배 반출량은 담배를 담배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판매한) 시기, 즉 납세의무 성립시기 때 이동된 담배의 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출량은 거래의 성립,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담배 물품을 절취한 양이나 담배가 제조 공장 밖으로 나간 수량도 포함한다. 그리고 만약 담배물품이 자연재해, 사고 또는 불량품 폐기 등 공장 안에서 폐기 되었을 경우 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담배 반출은 개별소비세법 뿐 아니라 지방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담배 반출량 통계 수치는 수출을 포함하지 않은 내국세용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조업체가 그 달에 반출할 양을 예측하여 공장에서 제조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소매업체에 그대로 공급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담배 반출량과 소매 판매량의 수치가 매달 일치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반출량과 판매량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담배 반출량은 사재기, 담배제조회사 또는 수입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보 등 판매영업 전략과 소비예측, 계절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순수 담배 소비량과 흡연율과는 단기적으로 몇 개월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담배반출량 추이

1) 담배반출량 변동요인

담배반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 보면, <표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월별 반출량은 외부활동시간과 연도 초기에 금연을 하려는 의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월별 담배반출량 평균값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계절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월부터 4월까지와 12월의 반출량은 연평균 반출량인 3억 7,200만 갑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에 대한 수요가 외부활동시간과 관련되어서 동절기가 하절기에 비하여 담배반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월과 2월의 반출량이 각각 2억 5,800만 갑과 2억 3,800만 갑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초에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반출량은 그 외에도 소득효과, 가격효과, 금연 교육, 금연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담배반출량이 '97년 33억 2,200만 갑에서 '98년 49억 갑으로 급증한 것은 '97년 11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외환위기를 겪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있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다.

'03년 44억 6,500만 갑에서 '04년 53억 9,100만 갑으로 급증한 것은 '04년에 담배부담금이 인상 될 것이 예상되어서 담배에 대한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05년에 38억 4,400만 갑으로 감소한 것은 담배부담금의 인상효과와 '04년의 사재기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격인상에 의한 반출량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99년 1월, '01년 1월, '02년 2월, 그리고 '05년 1월에 각각

가격 인상 조치가 있었는데, 이 시점 이후 반출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97년 5월부터 '06년 7월까지의 월별 담배 반출량 현황을 보면, '98년과 '00년 그리고 '01년과 '04년의 반출량 합계가 다른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04년에는 54억갑 수준으로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00년 이후 '03년까지 연도별 담배 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04년 12월 30일부터 부담금이 150원에서 354원으로 204원 상승함에 따른 급

표 2. 연도별 담배반출량 현황

(단위: 백만갑)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997	3,322	0	0	0	0	445	392	425	459	442	414	364	381	5.1.부담금 부과 (1갑당 2원)
1998	4,900	341	341	355	385	402	414	448	514	499	411	411	379	IMF 경제위기
1999	4,511	281	235	344	373	382	403	418	418	425	398	408	426	
2000	5,032	346	313	373	370	427	430	399	570	344	443	446	571	
2001	4,799	209	259	356	382	442	630	325	389	470	502	416	419	담배값 200원 인상
2002	4,474	486	165	264	301	393	389	373	366	388	383	375	591	2.1.부담금 인상 (1갑당 150원으로) 이주일 효과 ³⁾
2003	4,465	254	289	345	340	388	428	433	407	445	429	345	362	
2004	5,391	330	330	386	370	515	635	521	460	433	509	525	377	12.30.부담금 인상 (1갑당 354원으로)
2005	3,844	72	100	285	228	329	414	426	477	469	487	279	278	
2006	4,276	207	213	346	330	369	411	404	426	534	401	362	273	
2007	4,318	303	228	306	382	405	381	406	412	371	374	400	350	
2008	4,671	379	320	354	426	384	387	459	390	434	395	346	39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

3)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으로 금연열풍이 불었던 사례로서 이씨의 금연 호소에 자극받은 시민들의 금연열풍이 확산되면서 담배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언론 등에서도 보도한 바 있음.

격한 사재기의 발생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른 연도에 비해 연간 담배 반출량이 증가하는 연도는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직전년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바, '98년의 경우는 '9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가 신설되어 부과되는 직전년도이며, '00년의 경우는 '01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직전년도이고, '01년과 '04년의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요율이 인상되기 직전년도이다.

4. 담배반출량과 흡연을 추이의 상이한 이유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흡연

우선 우리나라 흡연을 조사에는 국내 거주 외

국인이 제외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등록외국인과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흡연을 하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흡연을 조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흡연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흡연을 계속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담배소비량도 상당한 분량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700만명 가까이 입국하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물론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가능성도 높으나 시내 관광 도중 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들이 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금연에 대한 각종 정책 입안 및 시행에 대해서는 이들의 통계가 중요한

표 3. 연도별 등록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남	녀
1997	201,186	122,798	78,388
1998	182,788	107,980	74,808
1999	206,895	121,135	85,760
2000	244,172	143,177	100,995
2001	267,630	153,449	114,181
2002	287,923	159,356	128,567
2003	437,014	257,628	179,386
2004	469,183	278,377	190,806
2005	485,477	283,998	201,479
2006	632,490	370,728	261,762
2007	765,429	438,660	326,769

자료: 법무부 출입국 관리현황 자료

표 4.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연도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1997	386,972	148,048
1999	381,116	308,165
2001	566,835	154,342
2003	678,687	209,841
2005	747,467	204,254
2006	910,149	211,988
2007	1,066,291	223,464

자료: 법무부 출입국 관리현황 자료

표 5. 국적별·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체류자격	국적											
	총계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대만	기타	
계	1,133,874	565,169	114,388	81,318	49,626	44,851	33,019	32,978	26,994	24,454	161,077	
시증면제(B-1)관광통과(B-2)	64,881	5,143	8,541	328	360	11,973	13,431	1,102	162	2,173	21,668	
단기상용(C-2)	45,216	29,785	377	776	444	10	16	2,558	141	15	11,094	
단기종합(C-3)	63,662	33,979	3,538	2,463	4,329	19	38	7,089	449	85	11,673	
유 학(D-2)	52,176	39,475	1,110	2,430	299	182	1,210	1,697	325	241	5,207	
산업연수(D-3)	20,223	8,475	0	2,368	1,910	446	0	574	1,722	0	4,728	
종 교(D-6)	1,841	74	550	20	336	16	106	34	18	21	666	
상사주재(D-7)	1,432	267	208	14	15	10	297	18	12	13	578	
기업투자(D-8)	8,448	1,393	532	7	73	41	1,797	294	14	28	4,269	
무역경영(D-9)	2,795	29	179	15	65	15	58	0	17	6	2,411	
교수(E-1) 연구(E-3)	3,742	817	521	58	44	15	460	14	21	16	1,776	
회화지도(E-2)	18,975	739	8,535	2	0	2	373	3	3	3	9,315	
예술홍행(E-6)	4,791	345	42	3	3,409	12	23	94	1	6	856	
연수취업(E-8)	20,557	2,383	0	5,156	2,030	1,143	0	763	1,804	0	7,278	
비전문취업(E-9)	189,540	25,172	0	40,228	27,275	28,140	0	13,745	20,562	0	34,418	
방문동거(F-1)	48,129	28,073	12,720	663	1,134	120	1,296	443	71	956	2,653	
거 주(F-2)	128,471	67,512	1,547	25,334	5,564	2,007	5,747	2,295	405	8,036	10,024	
영 주(F-5)	18,248	564	164	90	80	207	3,904	38	21	12,513	667	
방문취업(H2)	300,180	295,638	0	0	0	0	0	0	0	0	4,542	
기 타	140,567	25,306	75,824	1,363	2,259	493	4,263	2,217	1,246	342	27,254	

자료: 법무부 출입국 관리현황 자료

표 6. 최근 5년간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 7월말
총계	209,841	204,254	211,988	223,464	223,229
중국	102,745	93,667	93,345	102,426	101,913
한국계 중국인	57,023	45,563	37,720	34,448	32,182
베트남	10,041	10,884	13,126	14,992	16,308
태국	11,596	11,307	12,495	14,887	15,415
몽골	10,052	10,741	11,743	14,153	14,172
필리핀	12,090	13,519	14,235	14,420	14,252
기타	63,317	64,136	67,044	62,586	61,169

주: 중국은 한국계가 포함된 숫자임.
자료: 법무부 출입국 관리현황 자료

표 7. 체류 외국인 국적별 흡연율 현황

(단위: %)

구분	모든 종류 담배흡연율		결련 흡연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중국	60.8	4.2	60.8	4.2
미국	25.7	20.3	25.7	20.5
베트남	44.4	2.1	42.0	1.9
필리핀	40.7	9.1	38.1	8.0
태국	39.9	3.4	37.3	3.0
일본	46.0	13.7	46.0	13.7
몽골	44.6	5.3	44.6	5.3
인도네시아	65.3	4.2	61.8	3.7
대만	-	-	-	-

자료: who(2008), mpower - Adjusted prevalence estimates for WHO Member States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 청소년의 흡연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율 조사도 표본추출이나 표본의 규모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

다. 지난 5월 최근 청소년의 흡연실태 파악을 통해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보건교육 포럼에서 '베스트사이트 조사'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08년 5월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5.9%로 집

계(중 3.5%, 고 8.6%)되었으며, 흡연학생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외산 담배를 흡연하며(93.3%) 이 중 중학생 87.9%, 고등학생 95.5%가 외산 담배를 흡연하고 있다. 그리고 흡연학생 10명 중 9명 이상(91.3%)이 슈퍼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으며 그 중 64.4%가 동네 슈퍼에서, 26.9%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흡연율은 <표 8>과 같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 흡연율에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비용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청소년 흡연 문제점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는 다소 다른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05년도에 비하여 '06년도에 모든 부문에서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의 청소년 흡연과 관련한 다른 조사 결과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⁴⁾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와 한국소비자연맹

표 8. 중·고등학생 현재흡연율(1999~2008)

(단위: %)

학교	성	학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고등학생	남	계	32.3	27.6	24.8	23.6	22.1	15.9	15.7	20.7	16.2	18.1
		1학년	24.7	19.9	10.1	15.8	21.4	10.8	12.6	18.1	19.1	15.9
		2학년	31.1	29.8	32.6	24.2	20.0	17.3	22.1	21.9	15.3	21.0
	여	계	7.5	10.7	7.5	7.3	6.8	7.5	6.5	5.2	5.2	3.5
		1학년	10.5	12.2	9.6	8.5	6.8	9.2	5.2	6.3	6.6	3.3
		2학년	7.4	10.0	6.1	9.6	7.6	8.5	8.1	4.7	3.9	4.5
중학생	남	계	5.6	7.4	6.0	3.5	2.8	2.4	4.2	5.3	4.8	5.7
		1학년	1.1	2.7	2.2	2.0	1.6	0.5	3.8	3.1	2.1	4.2
		2학년	8.7	6.3	5.5	1.4	0.7	2.9	3.5	4.9	3.4	4.7
	여	계	3.1	3.2	2.0	0.9	2.3	1.7	3.3	3.3	2.6	2.2
		1학년	2.2	0.9	0.6	0.0	0.0	2.1	2.9	1.9	1.8	1.9
		2학년	3.2	1.0	1.8	1.6	2.0	1.3	2.7	3.2	3.9	1.4
	3학년	계	3.5	6.6	3.3	0.8	4.2	1.7	3.5	4.7	2.5	3.2
		1학년	2.2	0.9	0.6	0.0	0.0	2.1	2.9	1.9	1.8	1.9
		2학년	3.2	1.0	1.8	1.6	2.0	1.3	2.7	3.2	3.9	1.4
3학년	3.5	6.6	3.3	0.8	4.2	1.7	3.5	4.7	2.5	3.2		

주: 현재흡연자는 조사시점에서의 흡연여부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흡연실태조사(1999~2007; 각 년도 9월 통계(기준), 2008년 6월)

4) 아시아 투데이 2008. 12. 23일자

표 9. 성별 및 학년별 첫 흡연경험 연령

(단위: 세)

연도	성별	합계	중학생			고등학생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2005	남자	12.0	11.1	10.1	11.1	11.8	12.9	12.7	13.1	-
	여자	12.3	11.5	10.6	11.4	12.1	13.2	13.0	13.4	-
	합계	12.1	11.2	10.3	11.2	11.9	13.0	12.8	13.2	-
2006	남자	12.4	11.3	10.2	11.3	11.9	13.1	12.9	13.1	13.3
	여자	12.7	11.7	10.7	11.6	12.2	13.3	12.9	13.3	13.7
	합계	12.5	11.4	10.4	11.4	12.0	13.2	12.9	13.2	13.5

자료: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표 10. 성별 및 학년별 흡연경험율

(단위: %)

연도	성별	합계	중학생			고등학생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2005	남자	31.4	24.8	19.0	25.9	30.2	42.8	40.3	45.4	-
	여자	23.0	18.5	14.0	18.6	23.6	30.7	29.8	31.5	-
	합계	27.4	21.8	16.6	22.5	27.1	37.1	35.5	38.8	-
2006	남자	32.5	23.4	16.9	23.1	30.2	43.2	38.6	45.1	46.2
	여자	22.8	16.1	11.7	16.8	19.8	30.6	28.9	31.7	31.4
	합계	28.0	20.0	14.5	20.2	25.3	37.3	34.1	38.8	39.2

자료: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2005년 일반계고 전체 30.3%, 남자 36.9%, 여자 22.9%; 전문계고 전체 54.8%, 남자 57.8%, 여자 51.3%; 2006년 일반계고 전체 30.5%, 남자 37.0%, 여자 23.2%, 전문계고 전체 55.0%, 남자 58.8%, 여자 50.5%

표 11. 성별 및 학년별 현재흡연율

(단위: %)

연도	성별	합계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05	남자	14.3	6.5	10.1	12.6	20.5	24.5	-
	여자	8.9	4.8	6.5	7.7	12.5	14.6	-
	합계	11.8	5.7	8.4	10.3	16.8	19.8	-
2006	남자	16.0	5.4	9.2	13.5	19.9	24.7	27.0
	여자	9.2	4.5	5.6	7.5	12.8	13.4	12.8
	합계	12.8	5.0	7.5	10.7	16.6	19.4	20.3

자료: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표 12. 성별 및 학년별 매일흡연율

(단위: %)

연도	성별	합계	중학생			고등학생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2005	남자	5.3	1.9	0.6	1.4	3.9	11.1	8.8	13.5	-
	여자	2.4	0.8	0.1	0.6	1.7	5.2	4.0	6.5	-
	합계	3.9	1.4	0.4	1.0	2.9	8.3	6.6	10.2	-
2006	남자	7.2	2.4	0.7	1.7	4.7	12.9	8.7	13.6	16.6
	여자	3.2	1.0	0.2	1.2	1.5	5.9	5.2	5.9	6.6
	합계	5.3	1.7	0.5	1.5	3.2	9.6	7.1	10.0	11.8

자료: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이 지난 7월 전국 13개시의 담배판매처를 조사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청소년 흡연환경 및 행태조사 결과 세미나’에서 발표한 결과 전체 403곳 가운데 22.3%인 90곳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살 수 있었다.

위반 업소들은 조사관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달라고 했을 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92곳 가운데 38곳이 위반해 41.3%의 위반율을 보였고, 이어 춘천 28.8%, 목포 25.4%, 평택 12.5%, 부산 7.8%의 순이었다. 다만 이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당 업소에 공문이나 고시 형태로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행위 규제 등을 알린 뒤 지난달 2차로 조사한 결과 위반율이 7.9%로 감소했다.

한편 담배자동판매기도 청소년에 노출돼 있어 전국 393개 자판기 가운데 23개가 설치장소를 위반했고, 22개는 성인인증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 간접흡연도 심각해 전국 191곳 가운데 18%인 34곳이 연기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허리 높이 정도의 칸막이로 구분하는 등 형식적 연기차단막을 설치한 경우는 61곳(32%)이나 됐다.

위에서 청소년 흡연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조사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담배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므로 이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조사가 수행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청소년 대상 금연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저타르 담배 흡연자의 흡연량 증가

최근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다양성 부응 및 흡연의 위험성을 다소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타르 담배를 많이 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저타르 담배의 출현은 기존 흡연자 중 저타르 담배의 흡연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이들이 평소 흡수하고 있던 니코틴 양을 유지·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흡연량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타르 담배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전반적인 담배반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실제 주변 흡연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료의 부족으로 브랜드별

반출량의 추이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4)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증가

우리나라의 인구증가를 자체는 감소하여 왔지만 총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다. 따라서 흡연율이 감소한다 하여도 새로운 흡연인구(주로 청소년)의 수가 증가해 왔다면 흡연량의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700만명 가까이

입국하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물론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가능성도 높으나 시내 관광 도중 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들이 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금연에 대한 각종 정책 입안 및 시행에 대해서는 이들의 통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5) 담배회사들의 자사 담배 구입 가능성

담배회사들이 자사의 담배를 구입하여 홍보활동 및 담배판매 소매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담배회사 홍보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일단 그와 같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실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다.

5. 결

앞에서 흡연을 감소와 담배반출량 증가라는 다소 역설적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능성과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 흡연을 조사에 있어서 표본규모, 조사문항, 조사기간 등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좋은 통계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담배의 소비량에 대한 상세하고 광범위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담배회사의 브랜드별로도 시계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담배반출량 자체는 소비량과 다소의 시차도 존재하고 또한 정확한 소비량의 정의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헌

표 13.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현황

5세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구	증감율												
계	48,022	0.6	48,230	0.4	48,387	0.3	48,584	0.4	48,782	0.4	48,992	0.4	49,269	0.6
0~4세	3,104	-3.8	2,927	-5.7	2,778	-5.1	2,633	-5.2	2,430	-7.7	2,317	-4.7	2,316	0.0
5~9세	3,561	-0.5	3,505	-1.6	3,430	-2.1	3,334	-2.8	3,262	-2.1	3,134	-3.9	2,955	-5.7
10~14세	3,225	2.4	3,333	3.3	3,416	2.5	3,499	2.4	3,566	1.9	3,548	-0.5	3,494	-1.5
15~19세	3,512	-5.9	3,303	-5.9	3,175	-3.9	3,144	-1.0	3,131	-0.4	3,207	2.4	3,316	3.4
20~24세	4,014	1.8	4,049	0.9	4,066	0.4	3,897	-4.2	3,709	-4.8	3,494	-5.8	3,287	-5.9
25~29세	4,227	-4.4	4,098	-3.1	3,909	-4.6	3,872	-0.9	3,917	1.2	3,993	1.9	4,035	1.0
30~34세	4,624	2.5	4,641	0.4	4,585	-1.2	4,507	-1.7	4,375	-2.9	4,191	-4.2	4,075	-2.8
35~39세	4,245	-2.8	4,207	-0.9	4,317	2.6	4,390	1.7	4,447	1.3	4,566	2.7	4,596	0.7
40~44세	4,361	4.8	4,446	1.9	4,427	-0.4	4,383	-1.0	4,294	-2.0	4,181	-2.6	4,156	-0.6
45~49세	3,283	8.5	3,451	5.1	3,676	6.5	3,894	5.9	4,079	4.7	4,281	5.0	4,378	2.2
50~54세	2,413	1.6	2,519	4.4	2,568	2.0	2,703	5.3	2,956	9.4	3,212	8.7	3,386	5.4
55~59세	2,040	-1.6	2,027	-0.7	2,105	3.9	2,194	4.2	2,306	5.1	2,348	1.8	2,457	4.6
60~64세	1,878	3.6	2,013	7.2	2,029	0.8	2,010	-0.9	1,985	-1.2	1,961	-1.2	1,956	-0.2
65~69세	1,437	6.8	1,506	4.8	1,583	5.1	1,659	4.8	1,694	2.1	1,763	4.0	1,898	7.7
70~74세	949	4.9	1,002	5.5	1,051	4.9	1,119	6.5	1,206	7.8	1,293	7.2	1,363	5.4
75~79세	613	2.6	631	3.1	657	4.1	706	7.4	749	6.1	791	5.7	843	6.5
80~84세	333	5.0	360	8.1	391	8.8	407	3.9	426	4.7	441	3.7	463	4.9
85+	202	6.1	213	5.8	222	4.2	234	5.2	249	6.6	268	7.2	295	10.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